

김현승 시의 구조와 방법

유성호 *

- I. 김현승 작품론의 구도
- II. 신성(神聖)과 역설(逆說)의 시학
 - 1. '신성(神聖)'의 이미지 추구
 - 2. 명랑성의 시학과 감각적 이미지
 - 3. '자아'에 대한 역설적 인식
 - 4. '사라짐'의 역설적 의미 추구
- III. '고독' 천착을 통한 존재론적 '자기 탐구'
 - 1. '견고성/결정성'에 대한 관심
 - 2. '고독'의 시적 천착
- IV. 맺음말

I. 김현승 작품론의 구도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 작품들에 대한 가치 있는 의미 체계의 설정에 뜻을 두고 있다. 그것은 문학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창조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우리의 삶에 복원하여 전승될 만한 예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 연구는 그것이 축적되어온 전통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낱낱 작품이 견지하고 있는 의미

*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와 가치를 이어받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그 방법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것을 찾아낼 수도 있고, 역으로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작품의 속성과 독법(讀法) 선택의 조율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다형 김현승과 그의 시편들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시인과 그의 작품에 걸맞는 독법 설정 문제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생애와 시편들을 별다른 굴절 없이 연결시키는 전기 비평적 폐해는 극복되어야 한다. 어차피 시인은 ‘형상(形象)’으로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는 법이고, 물리적 시공간을 통해 구현한 생애나 산문적으로 뜻을 새긴 전언(傳言)이 시세계의 본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시인의 시를 전체적으로 읽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시세계의 기초가 되는 서정적 주체의 ‘인식 구조’와 ‘형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김현승에 어울리는 독법을 마련할 때, 효율성과 적합성을 필요조건으로 살펴야 한다. 그 필요조건을 설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인식 구조’와 ‘형상화 방법’이다. 여기서는 김현승이 사물을 읽는 ‘인식 구조’와 시를 쓰는 ‘형상화 방법’을 이른바 ‘대위구조적(對位構造的) 상상력’¹⁾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원적 사유에 바탕을 둔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적 상상적 힘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테면 ‘유(有)/무(無)’라든가 ‘진(進)/퇴(退)’ ‘명(明)/암(暗)’ ‘생(生)/멸(滅)’ ‘온(溫)/한(寒)’ ‘희(喜)/비(悲)’ ‘선(善)/악(惡)’ ‘시(是)/비(非)’ ‘해방/억압’ ‘자유/구속’ ‘자연/문명’ ‘희망/절망’ ‘농촌/도시’ ‘제국주의/식민지’ ‘이성/감성’ ‘신/인간’ 같은 사회적, 추상적, 가치 평가적인 의미론적 짝

1) 원래 ‘대위(對位)’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는 ‘대립적 위치’이다. 물론 음악 용어로서 사용되는 ‘대위법(對位法)’은 “각각 독립된 많은 선율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기술로, 화음의 형태를 나타내는 각 성부의 횡적인 흐름을 중시하는 작법”을 일컫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어의(語義) 그대로 “대립 형질로서의 의미와 동등한 위상(位相)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의 통합적 의미로 쓰인다.

(semantic pair)이 사상(事象)의 본질을 규정하는 대립적 힘이고, 그들이 이루는 조화 또는 우열의 양상에 따라 인생의 감각과 정서, 정조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유 방식을 일컫는다.²⁾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상상적 힘은 결국 그것들(의미론적 짝)의 대립·융화의 원리로 시적 형상을 창조하는 상상력을 말한다.

이러한 ‘인식 구조’ 및 ‘방법’이 김현승의 시세계를 읽어내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상정했을 때, 우리는 그 같은 양상이 이 시인에 와서 새롭게 고안되었다거나 또는 충격적일 정도로 독창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의 시세계를 검토했을 때, 이러한 ‘인식 구조’와 ‘형상화 방법’으로 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타당한 열쇠의 의미를 띤다고 보는 것이다. 김현승은 한결같이 이러한 두 대립항의 긴장과 이완 또는 겨룸과 화해의 역학이 사물들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사유한 시인이다. 따라서 그의 시 안에 부조(浮彫)되어 있는 두 가지 대립항의 긴장과 길항(拮抗)이 갖는 패러다임의 일관성을 자세하게 추적하면, 그의 시 안에 구현되고 있는 미학적 본령을 온당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물론 김현승의 시에서 추출되는 이항대립은 ‘남/녀’와 같은 중간 단계가 부재하는 ‘모순 개념’보다는 ‘빛/어두움’처럼 그 중간 단계가 가능한 이른바 ‘반대 개념’이 단연 우세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원적 사유에 바탕을 둔 이항대립적 틀이라고 할 경우 그것의 의미 자질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반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만 이른바 두 대립항을 통합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발아할 수 있기도 하다.

II. 신성(神聖)과 역설(逆說)의 시학

1. '신성(神聖)'의 이미지 추구

김현승은 한결같이 이원적 대위를 이루는 개념을 통해 사물의 실상에 접근하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이미지화하는 시작 경향을 보였다. 그것이 초기시에서는 '알레고리'라는 양식과 '인유(引喻)'라는 방법론적 원용,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작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의 시세계는 방향을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그늘,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그늘,
밝음에 너는 웃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眞理를 이야기한다.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 — 너에게서 ……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大地의 圓卓마다,
그늘,
五月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이깔나무 — 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 …….

— 「五月의 歡喜」 전문

이 시의 대위구조는 ‘그늘/밝음(빛)’ ‘기쁨/눈물에 젖음’(이상 1연) ‘형상/진리’(2연) ‘채움/남음’(3연) ‘고단함/쉽(환희)’(4-5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의 현상적 청자로 설정된 ‘너’는 문맥상으로 보아 ‘이깔나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시의 수신자는 그냥 보편적인 자연 물상일 수도 있고, 역으로 시인의 내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깔나무’는 다만 형식적이고 가상적인 청자일 뿐이다. ‘이깔나무’는 깊은 산에 사는 전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침엽수로서, 이 시에서 등장하는 ‘그늘’의 이미지와 썩 잘 부합되는 기품을 가진 나무이다. 이 시에서 결국 ‘그늘/밝음(빛)’의 대위는 시인의 상상력 안에서 ‘그늘=밝음’으로, ‘기쁨/눈물에 젖음’은 ‘기쁨=눈물’로 ‘형상/진리,’ ‘채움/남음’은 각각 ‘형상=진리’ ‘채움=남음’으로 어느새 동질화되어 축제의 상상적 공간(“풍성한 大地의 圓卓”), 혼용의 이미지(새 술들 가득 부어라!) 등을 불러온다. 결국 ‘고단함/쉽’조차 ‘고단함=쉽(환희)’으로 화한다. 이 같은 대위구조의 변화는 이 시인의 시세계의 변화의 길목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예전에 대위항을 둘로 갈라 하나에 긍정적 의미를, 또 다른 하나에 부정적 의미를 덧씌워 결국 전자가 후자를 극복함으로써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던 그의 시세계가, 이제는 ‘신성(神聖)’이라는 환희의 공간에서 그 둘을 통합하고 둘 사이의 변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물 또는 진리를 표상하는 두 가지 대위항을 결국 하나로 통합해내는 양식을 우리는 ‘역설(逆說)’이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눈에 띄는 김현승의 변화는 ‘알레고리’에서 ‘역설’로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 모두 네 번 등장하는 ‘그늘[陰影]’이라는 어휘는 의미가 이중적인데, 그것은 그 안에 ‘그늘’과 ‘밝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결국 ‘밝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자연의 한 현상이다. 신록을 반짝이게 하는 ‘밝음(빛)’으로 인한 필연적인 부산물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환희의 공간에서 이미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융화의 세계로 탈바꿈된다. 대립적 심상의 동시적 파악, 곧 대립이 아니라 상호 침투하는 대위항들, 이것이 김현승의 대위구조적 상상력의 변화상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이다. 대립적 심상을 자신의 관념 안에서 선형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알맞은 자연 심상을 배치한 후 하나에는 긍정적 의미, 다른 하나에는 부정적 의미를 덧입혀 하나를 승인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했던 알레고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그 두 대위항이 결국은 사물의 양면을 이루는 동시적 존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의 열림, 그 변증적 안목이 김현승 시의 진화를 드러내주는 대목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 안에서 서정적 주체는 한 계절의 추이(推移)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본연의 실존을 별다른 적대감이나 갈등 없이 수락하는 조화로운 시적 목소리를 보인다. 결국 사물들은 ‘형(形)’만 다르지 ‘본(本)’은 다르지 않다는 인식 안에서 ‘기쁨’과 ‘눈물’이 대립성을 떨 까닭이 없는 것이다.

2. 명량성의 시학과 감각적 이미지

사실 김현승의 시는 누구보다도 ‘지성(知性)’에 바탕을 둔 사색의 시 곧 주지적(主知的) 시이며, 신선하고 발랄한 감각을 언어적으로 이미지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그는 어떤 ‘관념’이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차적 의미의 이미지즘적 성향을 구현하고 있는 시인이다.

詩人들이 노래한 一月의 어느 言語보다도
峯下 五도가 더 차고 깨끗하다.

메아리도 한 마정이나 더 멀리 흐르는 듯 ……

正月의 썰매들이여,
감초인 마음들을 未知의 散亂한 言語들을
가장 鮮명한 音響으로 번역하여 주는
出發의 긴 汽笛들이여,
잠든 森林들을
이 맑은 공기 속에 더욱 빨리 일깨우라!

무엇이 슬프랴,
무엇이 荒涼하랴,
歷史들 썩어 가슴에 흠을 쌓으면
希望은 문혀 새로운 種子가 되는
지금은 樹木들의 體溫도 뿌리에서 뿌리로 흐른다.

피로 멎든 땅,
傷處 깊은 가슴들에
사랑과 눈물과 스미는 햇빛으로 덮은
너의 하얀 祝福의 손이 걷히는 날

우리들의 山河여
더 푸르고 더욱 遼遠하라!

— 「新雪」 전문

이 시편은 시인이 생전에 스스로 전집(全集)을 묶을 때 그 첫 페이지에 수록한 작품이다. 차고 깨끗함을 지향하는 서정적 주체의 정서가 ‘일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갖는 신선함과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모두 6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1연에서 서정적 주체는 시인들이 '일월'에 대해서 노래한 어느 시어(詩語)보다도 일월의 실제 온도인 '영하 오도'가 더 차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다. 시인들이 아무리 차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실재에 가깝지 않은 가상(假想)일 뿐인 것이다. 시인의 '언어'가 결국은 가 닿을 수 없는 감각적 실재를 '일월'은 그 기온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또는 사변)'보다 '실재(또는 형상)'를 우위에 두는 것은 김현승의 대위구조의 기본을 이룬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나무와 먼 길」이나 「플라타너스」 등에 그와 같은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2연은 1행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차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멀리 퍼지는 소리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차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소리[音響]가 멀리 멀리 퍼져 나가는 것은 우리의 체험으로도 넉넉히 증명할 수 있는 실재이다.

3-4연에서 서정적 주체는 정월을 달리는 아이들의 '썰매'를 보면서 어느새 들녘을 달리는 '기차'를 연상한다. 그것은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미지(未知)의 언어를 나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든 삼림들을 이 맑은 공기 속에 더욱 빨리 일깨우"는 "기적"은 "감초인 마음들을 미지의 산란한 언어들을 가장 선명한 음향으로 번역하여주는" 소생과 출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미지'는 두려움이고 설렘이지만, 그 언어에는 슬픔과 황량함이 없다. 그것만이 1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듯이 역사가 썩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만이, 그리고 한 알의 씨가 땅에 묻힘으로써만이 희망의 새 역사는 열리는 것이다. 5-6연에서는 지나간 상처나 아픔 따위는 사랑과 눈물과 스미는 햇빛으로 덮어버리고, 더 푸르고 요원한 산하를 덮는 눈을 두고 희망을 읊조리고 있다. 이 같은 '명랑성'의 시학은 이 시인의 형이상적 열정의 또 하나의 기축을 이룬다.

3. '자아'에 대한 역설적 인식

'역설' 또한 대위구조를 필요 조건으로 하는 인식 및 방법임에 틀림없다. 다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다른 하나가 결국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통합성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김현승이 알레고리적 세계관을 벗어나 세계의 복합성을 승인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서성이는 것이 실존적 정직성임을 알아챈 일종의 '시적 진화(進化)'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설'은 이 시인의 자기 탐구의 적실한 방법론이 된다.

내 목이 가늘어 懷疑에 기울기 좋고,

血液은 鐵分이 셋에 눈물이 일곱이기
 咆哮보담 술을 마시는 나이팅게일 ……

마흔이 넘은 그보다도
 뺨이 쪼들어
 戀愛엔 아주 失望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
 信仰과 이웃들에 자못 길들기 어려운 나 —

사랑이고 원수고 몰아쳐 허허 웃어 버리는
 肥滿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 —

내가 죽는 날
 단테의 煉獄에선 어느 扉門이 열리려나?

이 시편은 김현승이 해방 후에 창작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1947. 6)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 시의 전반부에 형상화된 자신의 외양은 곧바로 자신의 내면적 모습을 설명적으로 전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앙적 회의, 곧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 강력한 구심력으로 움아매었던 신앙으로부터 “눈물이 일곱인” 시인은 서성이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인의 회의에는 연옥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자조적(自嘲的) 캐리커처를 통해 시적 주체는 회의와 죄의식, 불안 의식, 운명에 대한 불투명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가 그에게 ‘역설’적 인식과 정서적 복합성을 가져다주는 매질로 작용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4. ‘사라짐’의 역설적 의미 추구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통념(通念)에 의하면 ‘소멸성(消滅性)’과 ‘영원성(永遠性)’은 전형적인 대위적 짝이 될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이 순간적이고 일과성(一過性)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소멸성’은 당연히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은 시간적 구속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편적 사유에서 지상적, 세속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데 비해, 천상적이고 신성한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으로 각인된다. 이처럼 선명한 대립적 의미를 갖는 ‘소멸(사라짐)’과 ‘영원(남음)’은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환치(換置)되어 전자는 인간적 한계를 나타내고, 후자는 그리움의 형식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성을 띠는 두 형질은 김현승의 독특한 시적 사유에서 통합된다. ‘소멸’과 ‘영원’의 통합, 그것을 더욱 선언적으로 말하면 김현승에게는 “사라지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보다 아름다운 눈을 위하여

보다 아름다운 눈물을 위하여
나의 마음은 지금, 喪失의 마지막 잔이라면,
詩는 거기 반쯤 담긴
가을의 향기와 같은 술 ……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사라지는 것만이, 남을 만한 眞理임을 위하여
나의 마음은 지금 저무는 일곱時라면,
詩는 그곳에 멀리 비추이는
입 다문 窓들 ……

나의 마음 — 마음마다 로맨스 그레이로 두른 먼 들일 때,
당신의 영혼을 호올로 北方으로 달고 가는
詩의 검은 汽笛 —

天使들에 가벼운 나래를 주신 그 은혜로
내게는 자욱이 퍼지는 言語의 무게를 주시어,
때때로 나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오오, 地上의 神이여, 地上의 詩여!

— 「地上의 詩」 전문

이 시편은 김현승의 시적 사유가 지향하는 역설과 통합적 상상력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다. 그것은 그동안 전형적으로 대립적 구조를 형성하던 형질들이 결국 하나의 사물 또는 본질을 이루고 있는 양대 기축(基軸)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1연에서 서정적 주체가 소망하는 것은 ‘보다 아름다운 눈’이나 ‘보다 아름다운 눈물’로 표상된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유희주의적이고, 자족적인 ‘심미성(審美性)’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김현승이 지향하는 인생론적 경지로서의 ‘아름다움’이다. 결국 그

것은 “아름다움=참됨(진리)”의 뜻으로 전화된다. 그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은 지금 ‘상실’의 마지막 잔이 되고, 자신의 ‘시’는 그 안에 반쯤 담긴 술과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상실’이란 ‘결여’ 또는 ‘결핍’을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이지만, 이 시에서 그것은 결국 ‘충일’의 이미지를 곧바로 불러오는 역설적 기제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으로 읽힌다. 시인의 ‘시’ 역시 잔속에 반쯤 담겨 있는 술로 비유되는데, ‘반(半)’이라는 양 자체가 긍정과 부정, 곧 ‘소멸’과 ‘충일’을 동시에 가능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가을의 향기’와 같다고 함으로써 그것 역시 ‘가을’이 환기하는 ‘소멸’과 ‘풍요’라는 이중적 속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연에서 그것들(눈/눈물)은 ‘사라지는 것들’과 의미론적으로 같게 된다. 그러나 서정적 주체에게 있어서 ‘사라지는 것들’ 곧 ‘보다 아름다운 눈’과 ‘보다 아름다운 눈물’은 그것만이 ‘남을 만한 진리’가 된다. 그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은 ‘저무는 일곱시’이고, ‘시’는 ‘그곳에 멀리 비추이는 입 다문 창’이 된다. ‘저무는 일곱시’나 ‘입 다문 창’ 역시 예외 없이 ‘소멸’의 이미지를 동반하는데, 그것 역시 ‘새롭게 열림’이라는 가능성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이제 ‘소멸’과 ‘생성’은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양면적 속성일 뿐 그 자체로 선연한 대립성을 띠지는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이 작품은 ‘천사/시인’의 대위구조를 형성하는데, 그것은 ‘가벼움/무거움’의 대위이기도 하다. ‘지상의 신’은 내게는 천사와 같은 ‘가벼운 나래’ 대신에, 감당하기 어렵고 자욱이 퍼지는 ‘언어의 무게’를 짐 지운다. 그 어려움과 인고(忍苦)를 통해 ‘지상의 신’은 때때로 나의 슬픔을 위무(慰撫)하기도 하는데, 그 존재는 곧바로 ‘지상의 시(詩)’로 환치된다. 결국 지상의 ‘시’는(‘신은’ -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 둘은 발음상 똑 같다) 사라지고 말 운명과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사라짐’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지상의 시’를 결국 영원성에 이르는 길로 승화시키고 있는

시인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정적 주체의 열정과 애정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적 상상력 곧 ‘사라짐’과 ‘영원’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힘은 “길들이 끝나는 곳에서/길은 열리어/生命의 매듭은 자라가는 것 —/歷史의 廻廊은 영원으로 굽이치는 것”(「飛躍」)이나 “갔으나 사라지지 않고/빈들에 울리는 우리의 소리를 듣는가”(「生命의 合唱」) 등으로 이어진다. ‘시적 상상력’이란 위대한 창조적 질서의 원리로서, 제재들을 분별하고 질서화하며, 분리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데, 이 시인에게 있어 그것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Ⅲ. ‘고독’ 천착을 통한 존재론적 ‘자기 탐구’

김현승은 후기 시편에서 철학적 관념을 극한까지 추구하게 되면서 형이상적 궁극에 이르는데, 그것이 다름아닌 ‘고독(孤獨)’이라는 개념의 집요한 천착이다. 사실 그에게 ‘고독’이라는 추상적, 철학적 범주는 이 시기에 그가 경험하였던 지적, 정서적 충동을 응변해서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의미소가 되고 있다. 사실 이 시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역시 그것에 크게 기대고 있는 편인데, 김현승을 이르는 별칭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고독의 시인’인 것만 보아도 ‘고독’과 그의 관계는 단순한 주제적 집념 외에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고독’의 인식을 통해 결국 김현승은 가장 치열한 ‘자기 탐구’의 극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김현승이 자신의 시적 여정 중 가장 깊이 있는 ‘관념(고독)’에 이르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형상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견고한 고독』과 『절대고독』을 펴낸 시기는 그의 시적 일생의 클라이맥스이고, ‘신앙’으로 원점 회귀(原點回歸)하기 직전의 한 정점(頂點)이기도 하다. 따

라서 이 시기는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피어나는 촛불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기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영혼에 깊고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형이상적 관념이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고독’이다. 그것은 분명 시적 ‘천착’ 또는 ‘굴착’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끈기 있고 정성 어린 탐구였다고 보인다.

1. ‘견고성/결정성’에 대한 관심

제대로 된 문학 작품 연구는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진술을 넘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경험 자체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승의 시를 탐구하는 데 우리가 그의 경험적 정수에 도달하는 일은 그의 ‘관념’이 가지고 있는 변이 곡선을 따라가 보는 일이다. 김현승은 ‘견고함’과 ‘결정성’이라는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의 각질을 형성한다. 그의 이 시기의 시집 제목이 벌써부터 『견고한 고독』이다.

껍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

그늘에 빛지지 않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는
단 하나의 손발.

모든 神들의 巨大한 正義 앞엔
이 가느다란 창끝으로 거슬리고,
생각하던 사람들 굽주려 돌아오면
이 마른 떡을 하룻밤
네 살과 같이 떼어 주며.

結晶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
堅固한 칼날 — 발 딛지 않는
피와 살.

뜨거운 햇빛 오랜 時間의 懷柔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木管樂器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

쌈쓸한 滋養
에 스며드는
에 스며드는
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

— 「堅固한 고독」 전문 —

‘이슬과 사랑’에도 녹지 않는 녹녹하지 않은 단단한 ‘고독’, 그것은 여하한 인간적 열정과 의지로도 범접하기 힘든 자기 신성성을 일정 부분 누리고 있다. 여기 ‘감상(感傷)’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고독’은 단단한 각질을 두르고 있다. “껍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단단하게 마른” 얼굴을 하고 있고, “結晶”과 “칼날” 또는 “木管樂器” “굳은 열매” 등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전도로 그 경도(硬度)는 매우 거세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그같이 견고하고 메마른 이미지에 단 하나의 습기와 윤기가 도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열매 안에 들어 있는 “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이다. 따라서 그의 ‘고독’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불모성’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 엿비치는 신앙적 자아에 대한 회의

(懷疑)는 ‘질서’에 대한 것이지 그 자체로 ‘비관주의’를 형성하지 않는다.

특히 이 시는 한결 같은 명사형 종결 유형이 그 메마름을 형상적으로 일깨우고 있는 특색을 보인다. 그것은 모두 견고한 고독을 이루는 ‘살’의 이미지이다. ‘고독’의 원의에 해당하는 이른바 ‘매개어(vehicle)’들이 하나 하나 철저히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기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적 고뇌 안으로 들어오려는 서정적 주체의 단호함을 증명해주는 매질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서정적 주체는 즐기차게 인간적 관심과 인간적 사상(事象) 및 주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고독’의 시적 천착

김현승이 이 시기에 가장 즐기차게 매달렸던 시적 주제는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고독’이다. 이 시인이 추구한 ‘고독’의 층위는 실로 다양한데, 그것은 그 스스로 말했던 ‘기질적인 고독’, 그리고 시대적 양상이 가져다 준 ‘사회적인 고독’, 그리고 ‘존재론적 고독’과 ‘신을 잃은 고독’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현승의 ‘신’에 관한 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인식이 키에르케고르를 연상시키는 실존주의적인 것과 완전히 등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가 다분히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인간적 구원을 바랐던 데 비해, 김현승의 그것은 신으로부터 멀리멀리 방법적으로 떠나버린 순수 고독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순정한 고독의 세계를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아름다운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이 體溫으로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원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 준다.

그리고 꿈으로 고이 안을 받친
내 言語의 날개들을
네 손끝에서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보내고 만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아름다운 영원을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 나의 詩와 함께.

— 「절대고독」 전문

김현승의 필생의 시적 테마였던 ‘고독’은 프로테스탄트의 힘겨운 자기
각성 또는 자기 정체성 도달의 의미를 띤다. 신의 일관된 침묵, 그러나
세계를 버릴 수 없는 고독한 자의 쓸쓸함은 앞서 보았듯이 그의 시에서
‘보석(寶石)’이라는 이미지를 즐겨 불러온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고독과
고고함을 동시에 표상하는 시적 이미지이다. 김현승은 그의 시작 후기에
이르러 그의 시적 주제를 온통 ‘고독’의 의미에 두었던 시인이다. 시집 『
견고한 고독』과 『절대고독』은 이러한 그의 집요한 탐구열을 보여 주는
작품집인데, 이때 ‘고독(Solitude)’의 시적 의미는 외파로 혼자 버려져 있
는 감각적 쓸쓸함으로서의 ‘외로움(Lonliness)’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
은 ‘단독자’로서의 인간적 실존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앎으로써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보통 ‘고독’은 홀로 있음의 의미이다. 이를 ‘고립자’와 ‘단독자’의 두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고립자’는 기질적인 문제에 속하며, ‘단독자’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단독자’는 모든 사람들 속의 단 한 사람을 의미함과 동시에 만인을 의미할 수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변증법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려 한다면 ‘단독자’의 범주를 늘 쌍방에 걸쳐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이중적인 것이 참된 ‘단독자’의 사상이다. 이 ‘단독자’에 철저해지는 것이 타자와의 연대를 낳는다. 이 시에 나타나는 ‘고독’ 역시 고립되고 절망적인 ‘외로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에 깊이 들어간 세계에서 새로 발견하는 탄생의 기쁨을 보고 있다. 그것을 일러 시인은 ‘절대고독’이라 부르고 거기서 ‘영원의 먼 끝’을 만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생각하던’ 것을 ‘만지게’ 되었다는 감각의 전이(轉移)이다.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대상의 확연한 전유를 시인은 만진다는 촉각적 체험으로 절실히 표현한다. 사실 ‘영원’이란 시간성의 흐름 자체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시간 부정적(negative) 개념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변화나 굴절보다는 절대성으로서의 무한 동경이 내재한다. 시인은 그 영원의 끝을 만지면서 비로소 고독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을 하품을 하며 오랜 잠을 깨는 기침(起寢)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IV. 맺음말

관념론적 사유에 의하면 원래 ‘실재(實在)’는 정신적인 것이다. 버클리(Berkley)가 말한 바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지각되는 것이다(esse est

percipi)”. 따라서 물질은 정신 속에 있는 관념들(ideas)의 형태로밖에는, 또는 정신 활동의 표현으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현승의 경우 사유 방식은 관념론의 한 형태인 기독교적 실존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그는 인간 존재를 신 앞에 던져진 유한하고 고독한 존재로 파악, 그 안에서 영원을 감득하는 ‘절대고독’의 극한까지 추구해 간 보기 드문 지적 치열성을 지닌 시인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적 기제는 관념의 이미지화와 외계와 주체의 상호 기투에 의한 외계의 내면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여 김현승에게 자기 탐구 및 자기 구원의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현승, 『김현승전집 1·2·3』, 시인사, 1985-1986.
- 곽광수, 「사라짐과 영원성」, 『김현승 - 한국현대시문학대계 17』, 지식산업사, 1982.
- 권영진, 「시와 종교적 상상력(1)」, 『승실어문』2집, 1985.
- 김인섭, 「김현승 시의 상징체계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지성사, 1984.
- 박두진,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일조각, 1976.
- 소재영,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 『승실어문』12집, 1995.
- 소재영·권영진·한승옥·조규익,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승실어문학회 편, 『다형 김현승 연구』, 보고서, 1996.
- 유중호,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 윤여탁,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의 고독」, 『한양어문연구』13집, 1995.
- 이운룡, 『김현승-한국현대시인연구 10』, 문학세계사, 1993.
-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편, 『문학과 종교의 만남』, 동인, 1995.
- Jacques Martain(김태관 역), 『시와 미와 창조적 직관』, 성바오로출판사, 1985.
- Tzvetan Todorov(곽광수 역), 『구조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